

<2013.12.05.>

전 라 일 보

‘고창갯벌’ 서해안 대표 갯벌생태지로 개발

군, 240억 투입 기반시설 구축 추진

람사르습지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록된 고창갯벌이 세계프리미엄갯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

4일 고창군은 2013년도 제2차 고창군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창갯벌을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서해안권 대표 갯벌생태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.

이 사업은 심원면 고전, 만돌, 두어, 하전리와 해리면 금평리 일원에 펼쳐있는 천연갯벌에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.

우선 올해는 2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에는 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편입토지 매입과 진입도로, 주차장 교량 등의 공사를 착공하며 이후 갯벌탐방로(16.35km), 탐방로쉼터 5개소(1815㎡), 자전거쉼터 3개소(255㎡)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.

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0월 서해안권발전 승인, 고시에 이어 지난해 9월과 12월, 개발계획(안)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그해 12월 국토부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얻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.

고창=신동일기자·sd1@